

민형배·주철현, 오늘 꺾으로 단일화 전망...3파전 압축

민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D-2

여수 박람회장서 기자회견...공식 선언
신정훈·김영록과 치열한 3강 혈투 예고
과반 득표 힘든 구도...표심 향해 주목



민형배

남 동부권
지지층 흡수
를 기대하고
있다.
두 후보
는 앞서 지
난 20일 순

천시청에서 동부권 정책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전남 의과대학 설립, 반도체 산단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된 입장을 표명하는 등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검사(주 후보)와 청와대 근무(민 후보)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두 후보는 평소 자신들이 원조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임을 자처하며 친분을 과시해 왔다.

무엇보다 전날 신정훈·강기정 후보의 단일화 발표가 민·주 후보의 연대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장인 강기정 후보와 나주를 지역구로 둔 신정훈 후보가 결합하면서 기존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강 구도가 3강 구도로 재편되는 등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후보 간 합종연횡으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든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본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본경선은 4월3-5일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4월12-14일)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양시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철현 국회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민 의원을 단일 후보로 결정할 전망이다.

신정훈·강기정 후보 단일화에 이어, 민형배·주철현 후보 단일화로 본경선(4월3-5일)은 기호 1번 신정훈 국회의원, 기호 2번 민형배 국회의원, 기호 5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간 3강 구도로 재편돼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선투표에 진출할 1·2위 자리를 놓고 남의 기간 동안 3명의 후보 간 치열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 표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민형배·주철현 후보 측에 따르면 양측은 4월1일 오전 10시30분 여수 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양 후보 측은 실무진 차원에서 단일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주철현 후보가 민형배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형배·주철현 후보 간 단일화는 본경선을 이룰 앞두고 던진 승부수로 해석된다.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민 후보는 주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전

이정선 “동부권에 명문고 10개 만들겠다”

스마트교육청 설립 등 5대 비전 제시



그는 “광활한 통합특별시의 교육 현안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선 동부권 교육청서가 필요하며 교육 문제를 책임 있게 총괄할 동부권 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정선 예비후보가 31일 순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동부권 교육 대전환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순천의 아들인 이정선이 이제는 교육으로 고향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며 “전남 동부권의 교육 수준을 대도시 이상으로 끌어올려 ‘찾아오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동부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 전남 동부 스마트교육청 설립·부교육감 직제 신설 ▲ 내 집 앞 명문고 10개 만들기 ▲ 신산업 인재 삼각벨트 구축 ▲ 우리 아이 1000 드림(Dream) 펀드 조성 ▲ 교육 자산의 지역 환원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박성욱기자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학부모들의 염원인 ‘내 집 앞 명문고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교육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순천의 디지털 콘텐츠, 여수의 반도체, 광양의 이차전지 등을 잇는 신산업 인재 삼각벨트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 동부의 내일을 바꾸고, 시·도민과 함께 떠나는 교육에서 찾아오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헌 추진 합의서 공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서 명부'와 '초당적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서용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양부남 ‘경로당 부식비’ 추경 반영 촉구

관련법 개정 국비 지원 법적근거 완비

“李대통령 ‘노후 국가책임제’ 비전 직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제시한 이래, 같은 해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말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식비 증액의 결핵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법령상 지원 근거 미비’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끝내 본예산



반영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잔액 유무와 무관하게 부식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고물가와 지자체 재정난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지원되며, 반찬을 마련할 부식비는 기존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아껴 쓰거나 어르신들의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양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가 세수 부족으로 주 5일 식사를 감당할 여력이 없

다”며 “거주지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와 복지 불평등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일괄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부식비 지원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이번 추경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기준으로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던 부식비 증액 규모인 ‘485억원’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집행률을 고려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번 추경 반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국가책임제’ 비전과 직결되며 부식비 지원은 100세 시대 맞춤형 어르신 공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당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담아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이충재 예비후보, 정인화 지지 선언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3파전 재편

더불어민주당 이충재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정인화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잡한 광양시 현안 해결의 최적임자로 정인화 후보를 지목한다”며 단일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광양은 철강산업 위기와 항

만 경쟁력 약화, 지역 상권 침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후보의 자질과 청렴성, 행정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정 후보와 힘을 모으기로 결심했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 후보가 정책 연대와 합동 토론회 제안을 유일하게 수용한 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단일화 당사자로서 정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우며 16만 시민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인화 예비후보는 “이후부의 결단에 담긴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새기며 최선을 다해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영철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